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8호 [루계 제26122호] 주제 107 (2018)년 9월 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주규창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원사, 교수,  
박사인 당중앙위원회 고문  
주규창동지의 서거에 즈음  
하여 9월 4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은 로혁명가들 잃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장구한  
세월 우리 당의 국방공업정책  
을 받들어 헌신분투해오며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규창동지의 애국  
충정의 한생을 돌이켜보시  
면서 귀중한 혁명통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시  
였다.

조의 방문에는 태종수  
동지, 김평해동지, 리병철  
동지, 홍승무동지, 홍영철동지,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친근한 혁명전우로 한생을 빛내  
시어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뜻이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  
시어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뜻이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장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제1선에서 당의 위업을 받들어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르세아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  
진은 강도적인 체제봉애로 조선인민  
을 질식시켜버리는 적대세력들과의  
적에 대한 대결전이고 조선로동당의 권  
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며 인민

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  
람찬 투쟁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과 같이 모든것이  
어렵고 간고한 시기 이처럼 요란한  
대규모공사가 계속되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될것이라고 강조하시  
였다.  
중국의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  
닝 포스트》, 모세아의 리아 노보스페  
신, 인에프엑스통신, 무비의 프렌파 라  
피나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프레스  
TV방송, 인디아-아시아통신, 싱가포르  
신문 《판합조보》, 네덜란드 《아르판

위원회, 조선과의 선선협회 이탈리아  
《엑스프레스》, 아르헨티나공산당 인  
네트국제문제잡지 《데 포다스 빠르  
페스》, 보르부알조선선협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환구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인민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  
을 올렸다.  
중국의 해외망, 이한신문 《라이엔셜  
트리뷰》, 도이월란트반세연단 인터넷  
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과 나이  
제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  
위원회, 민주통교주체사상연구 전국

###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푼젠서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9월 8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 로씨야 연방평의회 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공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  
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  
할텐찌나 이와노브나 마드비엔프작가가  
하게 된다.

본사기자



### 위대한 경도, 불멸의 70성상

# 길이 빛나라, 주체교육발전의 자랑찬 행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영도의 자욱이 어린 평양교원대학의 구내길을 걸고있다.

돌아보면 볼수록 높은 경지에 올라선 우리의 교육에 대한 무한한 긍지감으로 흥분을 금할수가 없다.

소학교교과수업법칙, 자연실험교수법칙, 어린이지능개발기술보급실험을 비롯한 진공실천기술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도 흥집에 없는데 3D화상입력장치와 3D인쇄기, 전자칠판을 비롯한 첨단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은 또 얼마나 현대적인것인가.

지난 기간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프로그램들과 전자교양자료물,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안적 12년제의무교육장병을 집행하기 위하여 계획한 수많은 교재들을 집필하였으며 학생들의 지적적 사고활동에 기본을 두고 과학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 교육혁신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대학이 이룩한 성취는 참으로 대단하다.

평양교원대학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 이것은 하루이튿날이여 마련된 것이 아니다.

농사는 한해를 내다보고 짓고 나누는 10년을 내다보고 심지만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철세원인들의 영도하에 국가장군적 시거부터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부강조국건설의 전략적선수로 끈끈히 풀어주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과연 평양교원대학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었는가.

평양교원대학에서뿐만이 아니다. 나라의 진안적인 과학기술이 청년수준에 올라서고 과학기술이 조국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에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의 공지높은 현실.

바로 그 밑바탕에는 주체교육이라는 가장 굳건하고 강위력한 초석이 놓여있다.

정말 내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발적으로 펼쳐지고있는 혁신적성공들은 교육으로 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십시다. 그러나 교육이 교양교육이 아니라 커다란 힘을 부여하는 철세원인들의 영도의 위대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바로 그 증시여이다.

천만군인이 공화국이 겹치는 자랑찬 역사를 백두산철세원인들의 탁월한 영도하에 교육으로 휘황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며 겹치는 영광의 년대기라고 그러도 공지높이 이야기하는것은.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의하여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꾸러진 평양교원대학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주체교육발전의 70년사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두고있다.

지난은 역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오늘 이 땅에 세인을 경탄시키며 풀없이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들은 주체교육의 높은 위대한 공적의 자취가 새겨져 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인제인가야해진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라온것을 기뻐하시던 오렌 기간의 봉건적질곡과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지난날 매우 위엄이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온 세계에 이름떨치고있는것은 수령님께서 혁명적투쟁의 교육을 중시하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온 힘을 쏟으셨던 공적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일찍이 혁명적 현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던 조국건설의 위대한 공적의 자취가 새겨져 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후대들을 잘 기를수 없고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따라서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우리 민족의 번영과 기대할수 없다는 드림없는 신조를 지니셨던가 어머니수령님께서 혁명적 투쟁을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유에서도 교육사업에 커다란 힘을 쏟으셨던가.

해방후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던 조국건설을 부흥시키신것은 천만군민이 찬성하셨던가.

회상시키 《항호명을 지켜》에는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심,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과 싸우어도 몇차례씩 걸사전을 벌린 항호명영웅들이 지냈던 조국수호정신이 반영되어있다.

천막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전우들의 피가 스민 권기와 당원중을 안고 죽고와 서면이 걸사전은 수천리의 후퇴길을 끝까지 헤쳐온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인민군건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이야기와 회상시키 《군기초수입무를 달고》, 《살아서 끝까지》에 서술되어있다.

회상시키 《원리해산의 예시로 깃부신 <금화공세>》에는 몸소 위험천만한 전선 사명 무에까지 나오시여 미제의 전선사령부인 《대공세》를 단호히 깃부서버린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결정적순서를 앞당기기 위한 유려한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이 수복되어있다.

비밀불이치는 전회의 포연속에서도 인민군지휘원들의 추곡경거를 조직하시고 몸소 경기장을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하여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잊지 못하며 자주 새겨보는 이야기가 있다.

주체36(1947)년 8월 어느 날 밀 두마와 감자 한말을 이고 배치마치고리리럼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신 리계산녀성.

그는 두해넘어지만 해도 종살이를 하던 지기를 제방에서 농사지으며 제 절에서 몇몇에게 살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름없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면길을 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계산녀성과 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그가 글 한자 모르는 까마득이 라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그러저서는 그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돌아가면 부지런히 글을 배워 서달하여 문맹을 퇴치하고 재운으로 자신께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시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리계산녀성은 위대한 수령님께 맹세다처럼도 서달한데 문맹을 퇴치하고 고이제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리계산녀성의 편지를 보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인민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무한한 힘에 떠받들리어 끝없이 번영한 조국의 휘황찬란한

패일이 아니었던가.

하기에 준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과 교원들을 소환하여 교육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전선의 준원한 환경속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색 있는 형태의 공작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사실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47(1958)년 10월 자 리나는 모든 세 세대들에게 의무적 인 중등교육을 주며 기술의무교육을 중시하는 준비를 갖추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민적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체제를 준비할데 관하여》를 채택.

주체55(1966)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민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공포.

주체64(1975)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주체64(1975)년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11년제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갈데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시었다.

주체66(1977)년 9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기 제14차집회의에서 주체시대의 위대한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태제》를 발표하시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격육성의 길, 사회주의교육의 진로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주체교육의 대강을 마련해주신것은 부강조국건설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정책적 인 영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는 문명자가 단 한명도 없는 나라, 전안적무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정연하게 선 나라, 국가예산에 제일종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까지 넣는 세계 유일무이한 체제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참으로 독창적인 사회주의교육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탁월한 영도자이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교육공정사상과 업적을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다.

교육사상도 교육내용도 교육방법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고정적교과를 배움으로써 혁명적의의 매 시기, 배 단계마다 교육발전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눈을 세게를 보르!》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적 믿음직한 끝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

2009. 12. 17 김 정 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주신 이 뜻깊은 편지글에서 천만군민은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제강국으로 빛내이실 것의 확신과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교육으로 부강조국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책적 영도의 손길아래 주체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시던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은 지식인대군을 가진 위대한 나라,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혁명적 만들어내는 불계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펼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행성을 다 마치시여 나라의 교육발전이 쌓고 불멸의 업적을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이런 신념과 의지로 주체교육의 명백한 세기와 세기를 이어갈것을 이어주시기 위한 장군님이시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임박 세워주시였으며 두대 산물, 외진 동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학교들에 훌륭한 교육실비품을 보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그 손길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교육혁명의 표상을 장엄히 올리시고 혁명적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시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의 강령을 감수할데 대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우의

모든 신념과 의지로 주체교육의 명백한 세기와 세기를 이어갈것을 이어주시기 위한 장군님이시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임박 세워주시였으며 두대 산물, 외진 동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학교들에 훌륭한 교육실비품을 보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그 손길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교육혁명의 표상을 장엄히 올리시고 혁명적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시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의 강령을 감수할데 대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우의

모든 신념과 의지로 주체교육의 명백한 세기와 세기를 이어갈것을 이어주시기 위한 장군님이시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임박 세워주시였으며 두대 산물, 외진 동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학교들에 훌륭한 교육실비품을 보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그 손길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교육혁명의 표상을 장엄히 올리시고 혁명적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시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의 강령을 감수할데 대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우의

## 도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제3권 출판

【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도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제3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명철한 전략술로 가결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령의 평정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진술업적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정신유형성,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열렬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13권의 회상기들이 편집되어있다.

회상시키 《원리해산의 예시로 깃부신 <금화공세>》에는 몸소 위험천만한 전선 사명 무에까지 나오시여 미제의 전선사령부인 《대공세》를 단호히 깃부서버린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결정적순서를 앞당기기 위한 유려한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이 수복되어있다.

비밀불이치는 전회의 포연속에서도 인민군지휘원들의 추곡경거를 조직하시고 몸소 경기장을

달리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안겨 주신 현승명령으로서의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공적과 회상시키 《전승을 앞당겨온 추곡경거》가 감동있게 전하고있다.

회상시키 《항호명을 지켜》에는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심,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과 싸우어도 몇차례씩 걸사전을 벌린 항호명영웅들이 지냈던 조국수호정신이 반영되어있다.

천막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전우들의 피가 스민 권기와 당원중을 안고 죽고와 서면이 걸사전은 수천리의 후퇴길을 끝까지 헤쳐온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인민군건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이야기와 회상시키 《군기초수입무를 달고》, 《살아서 끝까지》에 서술되어있다.

회상시키 《원리해산의 예시로 깃부신 <금화공세>》에는 몸소 위험천만한 전선 사명 무에까지 나오시여 미제의 전선사령부인 《대공세》를 단호히 깃부서버린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결정적순서를 앞당기기 위한 유려한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이 수복되어있다.

비밀불이치는 전회의 포연속에서도 인민군지휘원들의 추곡경거를 조직하시고 몸소 경기장을

달리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안겨 주신 현승명령으로서의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공적과 회상시키 《전승을 앞당겨온 추곡경거》가 감동있게 전하고있다.

회상시키 《항호명을 지켜》에는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심,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과 싸우어도 몇차례씩 걸사전을 벌린 항호명영웅들이 지냈던 조국수호정신이 반영되어있다.

천막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전우들의 피가 스민 권기와 당원중을 안고 죽고와 서면이 걸사전은 수천리의 후퇴길을 끝까지 헤쳐온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인민군건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이야기와 회상시키 《군기초수입무를 달고》, 《살아서 끝까지》에 서술되어있다.

회상시키 《원리해산의 예시로 깃부신 <금화공세>》에는 몸소 위험천만한 전선 사명 무에까지 나오시여 미제의 전선사령부인 《대공세》를 단호히 깃부서버린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결정적순서를 앞당기기 위한 유려한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이 수복되어있다.

비밀불이치는 전회의 포연속에서도 인민군지휘원들의 추곡경거를 조직하시고 몸소 경기장을

## 올해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중요한 정치사업

올해는 공화국상년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자기의 진전과 발전행로에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힘있게 과시되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점업적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비롯한 농사결속을 잘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천이다. 농사결속을 잘하여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이것은 불계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굳어져온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올해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공과 영도의 영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공이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지 않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당의 구성과 의도는 현명적인 언사나 명시에 의하여 현실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우리 당은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점업적들을 밝히고 전제 인민이 한결같이 펼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전 인민적인 총동원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함에 무조건 정면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

을 안아오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농업부문에서 당이 세한 일공정산목표수행의 확고한 결정을 열어놓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올해농사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구성과 의도를 살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앞장서나가는 훌륭한 인민이다. 올해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업적을 세게로 일으키는것과 함께 온갖 고충현상으로 인한 농작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불리한 조건에서도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가지적적과에 만족하지않고 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높은 세운 일공정산목표를 정면할수 없으며 식량문제해결에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고 경제건설전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당의 의도가 철저히 관철될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라는 총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더 높은 일공정산으로 당중앙의 구성과 결심은 과학적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것을 세세히 증명하여야 할 때이다. 당의 의도와 정책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의 정진을 지닌 천만군민이 있기에 올해농사는 승리적 으로 계속될것이다.

올해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우리 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혁명적진정의 승리이며 이것은 결코 저절로 간직되는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할 때 인민의 기동성을 발휘할수 있다. 여기서 농사결속을 잘하여 높은 세운 일공정산목표를 정면할수 없으며 식량문제해결에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고 경제건설전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당의 의도가 철저히 관철될수 없다.

우리 당은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점업적들을 밝히고 전제 인민이 한결같이 펼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전 인민적인 총동원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함에 무조건 정면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

올해는 공화국상년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자기의 진전과 발전행로에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힘있게 과시되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점업적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비롯한 농사결속을 잘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천이다. 농사결속을 잘하여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이것은 불계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굳어져온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올해농사결속을 잘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공과 영도의 영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공이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지 않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당의 구성과 의도는 현명적인 언사나 명시에 의하여 현실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우리 당은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점업적들을 밝히고 전제 인민이 한결같이 펼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전 인민적인 총동원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함에 무조건 정면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















